



“모든 경제주체 서로 양보·협력해야”

대통령 이명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9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해의 동포와 북한 동포들께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언제나 새 날은 우리에게 희망과 신통을 주는 가슴 벅찬 날입니다. 비록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많이 어렵더라도 이 새 아침에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염원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저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새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 되어 이겨냈고,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군 주도 공동방위체제 완벽 구축”

합동참모의장 김태영

친애하는 육·해·공군·해병대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예비군 여러분! 2009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근무하는 부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눈 덮인 고지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함상에서, 공중을 솟아오르는 항공기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국가방위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 어린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정부의 정책을 굳건히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로 우리 한국군의 주도하에 UFG 한미 연합연습을 실시해 우리 군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한국 군 주도의 전구작전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자이툰부대와 다یمان부대는 지난 4년 3개월간의 이라크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전 세

계에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장병 여러분! 그러나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보상황은 우리 군에게 더 큰 임무를 부여하고,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중단, MDL 육로통행 차단 등 이해할 수 없는 대남 강경조치를 통해 남북 긴장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 여건의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와 여량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투철한 안보관과 대적관으로 무장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작전기강과 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우리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공동방위 운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군사협조체계와 단일 공동작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연합연습을 통해 이를 검증·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선진 정예군 건설을 위한 군



구조 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전력의 완전성과 합동성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대 구조와 전력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자치단 강한 군대’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장병 여러분! 군인은 전투 결과로 평가받고, 전투에서 패배한 군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이 명확한 상황 인식과 전투적 사고로 오로지 전투준비에 전념할 때 국민들은 더 큰 신뢰와 애정을 보낼 것입니다. 2009년 새해 아침을 여는 바로 이 순간, 국가의安危가 바로 우리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재물을 다합시다! 합동참모의장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편집 = 윤성희 기자

“군을 재조형하는 변화·개혁에 동참을”

국방부장관 이상희

친애하는 국군장병과 예비군, 그리고 모든 국방가족 여러분! 희망찬 2009년, 기축년(己丑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흑한의 고지에서, 거친 바다에서, 드넓은 창공에서, 조국 수호의 대임을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장병 모두에게 무한한 신뢰와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장병 여러분! 건군 60주년을 맞이했던 지난해 우리 군은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받들어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제하였고,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8대 국방정책 기조를 추진함으로써 국방 전 분야에 걸쳐 ‘현재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과 추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4년 3개월에 걸친 이라크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는 찬사를 받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무한한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음직스러운 국군장병과 예비군, 그리고 모든 국방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는 더욱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지혜를 가지고 ‘선진강군’을 향하여, 군의 재조형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주력했다면 새해에는 이를 자기화·신념화하여 제 위치에서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행동화하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견지한 가운데 흔들림 없는 대적관으로 무장하여 군의 정신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관행의 틀을 깨고 복무 자세에 대한 일대 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소극적·방관자적 입장에서 탈피해 모든 임무를 적극적·주도자적 위치에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역경과 고난을 초월한 ‘충성’, 그리고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 ‘술선수범’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군대’는 시간이 흘러 갈수록, 그리고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사고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는 자세로 우리 군을 새롭게 재조형하는 변화와 개혁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다시 한번 꿈과 열정을 가슴에 안고 기축년의 새해를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국군장병 및 국방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수호하는 F-15K 편대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새벽 공군11전투비행단 F-15K 편대가 일출로 붉게 물든 경북 포항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군교육방송 진중창작물 수상자 공고

국군교육방송의 진중창작물 공모에 전후방 각부대에서 이등병으로부터 군 교수·장교에 이르기까지 응모하여 주신 뜨거운 열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국군교육방송은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결과	소속	계급	성명	제목	상장/부상
최우수	103정보통신단	병장	문창송 외 2명	검정고시	민사심리전부장/30만원(문화상품권)
우 수	13항공단	상병	이상철	파이팅! Army Family	민사심리전부장/15만원(문화상품권)
	26사단	상병	박종찬	정예화된 선진강군	
입 선	31사단	일병	이승중	당신의 고운손	민사심리전부장/5만원(문화상품권)
	36사단	일병	김형은	다 리	
	53사단	하사	김봉민	장교는 아버지요 부사관은 어머니라	
	1117공병단	상병	조명근 외 1명	강한 친구의 발견	
	국군심리전단	병장	차정훈	군에 대한 편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20사단	원사	조대연	나는야 가스공주! 자기는 구원장자!	
	육군방공학교	소령	조양근 외 6명	소중한 선물	
국통사	병장	이인건	Episode		
	해병1사단	병장	진영기	심연에서 꽃핀 군인훈, 카를로니즈	

※ 상장/부상은 행정수발편으로 발송, 문의사항(군)은 900-2761~9 연락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장

정보 고군반 '09-1기 입교 안내

입교/등록 계획

과	정	원(명)	입교일	교육기간	등록일	등록장소	비고
고군반	(’09-1기)	○○	’09.1.12	’09. 1. 12 ~ ’09. 8. 28 (33주)	1. 11(월) 19:00~20:00	독신자숙소	입교석부장(동군무부)

입교시 준비사항

가. 준비서류 : 명령지, 사진(3 × 4cm) 3매, 군번도장, 차량 등록증·보험증·면허증사본, 연가미결제 확인서, 수당 통장 사본(농협/국민은행)
나. 복 장 : 동·하 근무복, 전투복(학교마크부착), 우의, 재욱복/재욱모
다. 개인 소양평가/재력측정 준비 : 입교당일 오전 평가 실시(4교시)
○ 과목 / 주요내용

과목	주요내용	비고
보병사단전술	·사단 편성 / 지휘체계 체계 ·공격 / 방어 작전 기본교리 및 목적·준칙 ※ 야교 50-2 (1-2-4) 2-4-14, 4-1-20, 5-1-14	
복합군사단전술	·군사전략 및 작전술 기본원칙 ·공격/방어 공격 작전·공성 및 방어 작전·공성 형태 ·타격방형, 임무배치, 주요방위 개념 등 ·각 전투행동 개념 / 목적(포위/개념 / 목적 / 방법) ·공격/방어 타격의 개념/방법, 반격/방위/방위, 반격/방위/방위 ※ 야교 22-9-21(2-3) 3-1-22(3-4) 4-1-28(5-3) 7-3(3)	* 문제유형 : 각 과목별 선대형 8개형 2문항출제 (문의 987-5820)
전술전장정보분석	·전장 정보분석 절차 및 각 단계별 개념 / 중요과정 / 내용 ·2단계 내의 각 요소의 종류, 기본 핵심 용어의 개념 ※ 야교 6-3(1장 3절, 2절)	
지휘관 및 참모임무	·지휘관 및 참모의 주요기능, 지휘소 종류 / 운용개념 ·지휘통제 본부 구성/운용개념, 각 참모별 주요 책임분야 ·계획 및 명령의 종류, 작명 5개항의 구성요소 ·최초 지휘관력도 포함요소 ·부대/지휘관 단계별 주요내용, 중대급에대 지휘관과 단계 ※ 야교 101-1(2장 25절, 3장 1-3절, 45절)	

※ 소양평가 및 교육용 CBT 확인 및 문의 : ☎ 987-5736

라. 초군반 교육간 군사학위 신청자는 등록시 고군과정 군사학위 학점신청
마. 기 타 : 개인 노트북 / 프린트는 등록 후 BOQ에서 사용 가능하나 주변장치(USB, ZIP드라이브, CD-R/W, 소프트웨어 등) 번입금지
※ 카메라 / 캠코더 기능 휴대폰 및 PDA, MP3 등록 후 사용

입교시 이동방법

가. 대전 → 정보학교
○ 버스 :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 이천터미널 → 장호원행(이황리 하차)
○ 승용차 : 대전 → 중부고속도로 일죽IC → 장호원행 → 상송대
나. 서울 → 정보학교
○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 → 장호원행(이황리 하차)
○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 → 장호원행(이황리 하차)
※ 정보학교 홈페이지(복지/지역정보) 활용

주거

가. 기혼자 : APT(입주금:15평, 90만원), 미혼자 : 영내 BOQ(월 1만원)
나. APT 입주신청 절차
○ 입주신청서 작성 → 입주심사 → 통보 및 입주, 이사
○ 입주신청 문의 : ☎ 987-5825

문의처(등록/입교 관련사항)

가. 교육단 학생대 : ☎ 987-5880 / 5886, ☎ 11번 031-640-5880
나. 교무처 교육기획장교 : ☎ 987-5733, ☎ 11번 031-640-5733

육군정보학교장